

데스크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그대들을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의 눈망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로 광주 효동초, 조대여중, 조대여고 선수들. ... 그런 만큼 광주 도시공사 핸드볼 팀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쉽게 지지 마라, 만만한 팀이 되지 마라. 우승보다 값진 1승을 위해.”

작년 6월 12일자 ‘우승보다 값진 1승을 위하여’라는 칼럼이다. 단 1승 올리기도 버거웠던 ‘만년 꼴찌 팀’이 올 시즌 SK핸드볼코리아 리그에서 ‘작은 기적’을 일궈 냈다. 지난 2010년 팀 창단 이래 작년 시즌까지 9년 동안 12승에 그친 팀이 올 시즌 무려 4승을 올린 것이다. 3무까지 합하면 무려 대회를 반토막 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대회를 반토막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승수를 쌓았을 것이다. ‘꼴찌의 반란’을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더없이 아쉬운 대목이다. 애잔한 꼴찌의 몸부림은 우리 대부분이 ‘무저’로 살기 때문에 늘 코골을 쫓아다니는 것인 지도 모른다.

그대들은 ‘기적의 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은 이제 쉽게 이길 수 없는 팀이 됐다. 패배의식에 절었던 루저가 아니다. 지난 1월 5일 마산에서 열린 SK슈가글라이더와 경기가 가장 드라마틱했다. 후반 10분께 16-24, 8점 차로 스코어가 벌어졌다. 예전 같으면 해 보나 마나 진 게임이다. 하지만 후반 29분 32초에 32-31로 경기를 뒤집었다. 아쉽게 경기 종료 전 20여 초를 버티지 못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무서운 뒷심이 있었다. 더구나 SK는 매년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다. 올 시즌 우승 트로피도 차지했다. 오세일 감독은 이 경기 후 선수들에게 놀림을 당하고도 울컥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가 포기한 줄 알았죠?” 선수들은 감독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간절함 담은 루저의 반란

광주도시공사미생(未生)들은 놀라운 팀워크로 스스로 스타플레이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주포 강경민을 시즌 득점왕(123골)과 MVP, 포지션별 올스타(센터백)에 올려 놓았다. 김근수는 여자핸드볼 국가대표로 밀어 올렸다. 득점왕, MVP, 국가대표 배출은 팀 창단 이래 처음이다. 핸드볼코리아 리그 사상 비우승 팀에서 MVP가 나온 것도 강경민이 처음이다. 동료의 희생이 없었다면 강경민은 홀로 돋보일 수 없었거나 득점왕

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웃 찬스에 불을 건네주는 한편 협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동료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핸드볼은 손흥민처럼 홀로 적진으로 치고 들어가 몇 골을 넣으면 승부가 갈리는 경기가 아니다.

이들의 변신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오 감독은 지난 2014년 난징 유스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청소년대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다. 그는 사실상 1년 계약 근무 조건으로 광주를 택했다. 그것도 대책 없는 만년 꼴찌 팀 감독이었다. 지난해 광주에 온 진의를 캐묻는 기자에게 그는 “그냥 왔다 가려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뭔가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는 팀에 처음으로 트레이너를 영입해 선수 컨디션을 관리했고 체계적 훈련 방식을 익시켰다. 선수들은 스스로 훈련하는 법이 몸에 익었다고 한다. 오 감독은 선수들에게 ‘웃자’ ‘늘 즐겁게 하자’는 두 가지 주문만 했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주포 강경민은 지난 시즌 팀을 박차고 나간 임의탈퇴 선수였다. 이후 서울에서 8개월 동안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오 감독은 삼고초려 끝에 ‘핸드볼을 접었다’는 강경민을 코र्ट로 돌려세웠다. 노장 소리를 듣는 송해립(35)도 불러들였다. 일본 여자핸드볼 실업리그 소속 히로시마 메이플레어에서 뛰었던 화려한

선수 생활은 이미 흘러간 송해립의 과거 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 감독은 기어코 그에게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혔다. 만연인인 그는 코트에서 오합지졸이던 팀의 리더가 됐다. 이들의 간절함이다 올 시즌까지 말치면 또다시 팀 해체가 거론돼 실직 공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절박함이 더해졌다. 구단주인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위기에 빠진 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핸드볼 협회도 동병상련의 심경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간절함은 화려하지 않으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행복한 질주 계속되기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을 지켜보면서 ‘휴수저 구단’ 레스터시티의 기적을 떠올려 본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2016년 창단 13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에 오르는 기적을 일궈 냈다. EPL 팬들에게도 ‘등보잡’이던 이 팀은 최근 20여 년 동안 리그 정상을 독차지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등 ‘빅4’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광주 시민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레스터시티처럼 휴수저나 루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코 ‘잊히지 않는’ 팀이 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최영대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1954년에 목포에서, 그리고 1958년, 1959년, 1960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연거푸 실패했다. 그는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마저 잃었다. 1961년 인제 보궐선거에서 다섯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되었으나 이번에는 3일 후 불어닥친 5·16쿠데타로 인해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정치활동을 접었다.

1967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김병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목포에 두 번이나 내려왔다. 목포 현지에서 국무회의까지 주재했고 직접 유세도 했다. 박정희와 그를 따르던 장관들 모두 목포 시민들에게 소위 돈폭탄(?)을 약속했다. 선거는 사실상 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

선거, 김대중, 그리고 호남!

서 목포 시민들은 DJ를 선택했다.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DJ와 호남의 운명적 결합은 시작되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두 번째 싸움이 벌어졌다. DJ는 향토 예비군제 폐지, 이중국가제를 비롯한 대중 경제 시행, 4대국 안전 보장론과 평화 통일론 등 파격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박정희는 당황하였고 각종 부정 선거와 지역감정, 개표 부정을 동원했다. 이로 인해 DJ는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에서는 박정희보다 1만 7171표 앞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DJ가 사실상 승리한 선거였다. 1967년 목포 시민들의 안목이 새삼 돋보였다.

1971년 대선 후 박정희의 보복이 본격화되었다. 의문의 교통사고, 납치와 살해 시도, 오랜 감옥 생활과 연금 등 가혹한 보복이었다. 1980년에는 박정희의 아류 전두환이 DJ를 사형까지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들을 당당하게 이겨냈다. 호남인과 전국의 민주 세력이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호남과 DJ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김

영삼과의 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나섰다. 다음 해 실시된 4·26 총선에서 그에게 제1 야당 총재 자리를 안겨주었다.

DJ는 1992년 대선 패배에 이어 1997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했다. 네 번째 도전이었다.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호남인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후시라도 영남 유권자들을 자극할까 걱정해서였다. 대선 선거 날 무섭게 행동했다. DJ가 획득한 전남 94.6%, 전북 92.3%, 광주 97.3%의 득표율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특히 DJ가 광주에서 획득한 득표를 97.3%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거의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였다. 하지만 2위와의 득표차 39만 표(1.46%)를 고려할 때 그런 득표율이 없었으면 DJ는 아마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눈물겨운 성원이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호남이 DJ를 지지한 것은 그가 단순히 호남 출신이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DJ가 추구한 비전과 정책 즉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 지역 균형 발전론 등이 호남인들이 추구한 가치 및 정책과 같았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었다. 호남과 DJ가 가치 동맹을 맺고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영남 출신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임진왜란 때 외지 출신인 이순신과 손을 잡고 나라를 지킨 것도 마찬가지였다.

남북 관계, 4강 외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생각하며 DJ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그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식에 세계적 찬사가 이어질 때 DJ의 의료 정책과 IT산업 육성에 감사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가 DJ를 그리워하고 또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 총선이 실시된다. 과거에는 DJ와의 연고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 총선 때는 말로라도 DJ와의 연을 내세우거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자체가 거의 없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다. 또 유권자들은 ‘뉴 DJ’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는 데 말이다. 총선을 앞두고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기 고

기본소득 보장의 ‘나비 효과’

하는데 그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기존 관념이 싹 사라진 백지 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 ‘쇼크 독트린’의 요지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난이나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면 인구가 변동하곤 했다. 평시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 스스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출생률이 감소할까 걱정이 앞선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필자 입장에서 바이러스 창궐로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니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실험이 눈길을 끈다. 기본소득(mincome)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의 작은 도시 도핀(Dauphin)에서 실시됐다. 일을 하건 안 하건, 이 도시 주민들은 가장 구성원 숫자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주 정부로부터 보장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놀랍게도 도핀의 청소년들이 훨씬 똑똑해졌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고 주민들은 훨씬 건강해졌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면 노동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기본소득 프로그램 동안 노동 시간은 고작 남성 1%, 기혼여성 3%, 미혼여성 5% 밖에 줄지 않았다. 줄어든 노동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더 하거나 아이를 더 낳는 효과가 있었다.

전남도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고자 신소할까 걱정이 앞선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필자 입장에서 바이러스 창궐로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니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실험이 눈길을 끈다. 기본소득(mincome)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의 작은 도시 도핀(Dauphin)에서 실시됐다. 일을 하건 안 하건, 이 도시 주민들은 가장 구성원 숫자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주 정부로부터 보장받았다.

나이·직업·소득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

본소득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결정판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기본소득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출생이 노동 인구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를 갖기를 주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공공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내년에 4차(2021년~2025년)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부처의 사업을 모아서 나열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 說

코로나로 부실 수업 등록금 부담 줄여 주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실한 원격 수업 등 대학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르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늘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인터넷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보충수업을 해 주지 않는다면, 시골 분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매달 기숙사비가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다.

부실한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전국 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 3월 대학생 6261명에게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24.2%)과 ‘불만족’(40.3%)은 그 열 배에 가까운 64.5%에 이르렀다.

전두환 광주 재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

고(故) 조비모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 참석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1년 만이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그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정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의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7일 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해 다음 기일에 인정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 소송법은 인정 신문을 진행하는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 씨 측이 갖은 핑계와 꼼수로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판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 앞서 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인정 신문을 다시 한다면 재판을 새로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 씨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씨는 이처럼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도골 리운딩을 즐기고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에는 ‘삭스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더욱이 5·18 40주년이 다가왔음에도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 씨는 잡회와 반성은커녕 진실을 왜곡하면서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또다시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실제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요즘 흔히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주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조금씩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재정을 직접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코로나로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라는 복지 논쟁을 불러왔다. 우선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선제적인 조치로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는 3월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달도 안 돼 지난 3월 1차 대상자 533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지급했다. 예산 263억 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5만

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30%에 별도 예산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며 소외되는 시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순천형 권본 운동’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학살의 주범인 관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미풍양속인 ‘권본’(權分)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감차·마스크 등 1주일분의 생활필수품

이 담긴 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운동인데 두 차례에 걸쳐 2000여 명과 함께 정을 나누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을 찾아 발 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씨줄(중앙정부)과 날줄(지방정부)이 잘 짜일 때 코로나 극복은 빨라질 수 있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문 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2-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